

『林園十六志』에 나타난 服飾에 대한 研究
- 服飾之具를 中心으로 -

장 숙 환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특임교수

**A Study on Attire and Accessories as Recorded
in the Imwon Sipyukji
- Focusing on Boksik Jigu -**

Sook-Whan Chang

Special Appointment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9. 10. 4. 접수; 2009. 12. 4. 수정; 2009. 12. 11. 채택)

Abstract

The Imwon Sipyukji of this study was compiled by Seo Yugu (1764~1845), a famous agronomical scholar of the late eighteenth century.

The contents of this book are divided into sixteen chapters related to all the important parts of rural home life ranging from daily routines to social life covering the agro-industry and the six skills of manners, music, archery, calligraphy, mathematics and horseback riding.

Seomyongji, one of the sixteen chapters, covers all that is necessary for living a rural existence such as house-building, clothing adornments and transportation as well as how to make and use daily household items.

The contents of the Boksik Jigu sub-section in the Sumyongji chapter consist of eight large units covering men's and women's clothing, bedding and pillows, sewing tools, belt and shoes accompanying the attire and storage for clothes. These eight are further subdivided into 65 items, each warranting a detailed explanation.

My study will translate the original Chinese text of Boksik Jigu into Korean. This sub-section in the Seomyongji chapter will facilitate an investigation into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on attire and accessories.

Key Words: Agro-industr(농공산업, 農工産業), Seomyongji(섬용지, 贍用志), Sewing tools(재봉제구, 裁縫諸具), Storage for cloths(저장, 儲藏), The six skills of manners, music, archery, calligraphy, mathematic and horseback riding(육예, 六藝)

Corresponding author ; Sook-Whan Chang

Tel. +82-2-3277-3752, Fax. +82-2-3277-4680

E-mail : Changsw@ewha.ac.kr

I. 서론

전통복식사를 연구하는 모든 이들이 안고 있는 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역사 속에서 술하게 편찬되었던 방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한 복식 문화를 연구하는 일이다.¹⁾

복식 문화란 곧 인류사 변천의 종합적인 문화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선인들이 남겨준 귀한 유물을 통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담긴 정신과 사상적 배경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문헌을 통한 자료 연구가 아닌가한다.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자료를 통한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자료의 대부분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 자체가 난해한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어려움이었다.²⁾

『韓國服飾史資料選集』은 조선시대 法典·史書·類書·文集類를 모아 해설한 자료로 이제까지 복식사연구자들에게 커다란 편의를 제공해 왔다. 『林園十六志』는 위의 자료선집에서 빠진 자료에 하나로 일찍이 1967년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에서 『林園十六志』 第二卷 영인본이 출간된 이래 이 책의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와 인용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져 왔지만 전편적인 것은 한편도 없었다.³⁾

본 논고는 이러한 『林園十六志』에 대해서 복식관련 항목만을 뽑아原著의 해석과 동시에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林園十六志』 贍用志 服飾之具의 내용은 冠巾笠帽, 男女服, 寢具, 裁縫諸具, 의복에 따르는 帶와 鞋 그리고 의복을 간수하는 儲藏의 8종류로 대별하고 이를 다시 65종류의 세목별로 설명하고 있다.

복식지구의 세목별 내용설명은 대체로 연혁, 형태, 재료, 만듭새, 간혹 名産地를 밝힌 것도 있으며 글의 後尾에는 引用書名을 낱낱이 명기하고 있다. 작은 항목별로 해설위주의 설명을 붙인 복식 용어사전이다.

또한 服飾之具의 引用書目에 빈도를 보면 모두 16권의 서적을 인용하고 있으며 撰者의 수필인 『金華耕讀記』가 51회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복식만을 한 단원으로 묶어 서술해 준 책이 희소하다는 점과 撰者가 처해있었던 18세기후기와 19세기전기에 걸친 당시의 士庶人복식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존 유물에 대한 문헌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基本文獻史料로서 服飾史 연구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고찰함에 意義가 있다고 본다.

2章에서는 서유구의 家系와 『林園十六志』 저술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고 3章에서는 贍用誌 服飾之具의 冠巾笠帽, 男女服, 帶와 履, 雜飾의 服飾資料 내용을 검토·補完하였으며 4章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반에 대해 가졌던 徐有矩의 실용적 服飾認識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徐有矩와 『林園十六志』

『林園十六志』는 조선조 후기의 실학자 중에서 農政家로 유명한 徐有矩의 저서이다.

그는 三大提學 三政丞의 명문 大邱 徐氏의 집안에서 英祖 40年(1764)에 태어났다. 祖父는 『故事新書』를 편찬한 徐命膺이고 生父는 奎章閣 直提學을 지내고 『海東農書』를 지은 徐浩修이며, 『閨閣叢書』를 지은 憑虛閣 李氏의 부군인 徐有本은 그의 伯兄이다.

본관은 達城, 字는 準平, 號는 楓石, 正祖 14年(1790) 27세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正祖 22年(1798)에 淳昌 郡守를 시작으로 대교·검열을 지내고, 순조 때 의주부윤·예조판서·대사헌·이조판서·대제학 등 선비로서 최고의 벼슬을 두루 거쳤다.

成均館 大司成으로 있으면서 純祖 25年(1825)에는 『杏菴志』를 저작하였고 純祖 34년에는 湖南巡察使를 지낼 때 고구마 재배법을 보급하였고 『種藷譜』를 펴내었다. 憲宗 6年(1840) 頃에 퇴관하여 憲宗 11年(1845)에 82세로卒하였다.

그에게는 宇輔란(1795-1827) 獨子가 있어서 『林園十六志』의 편찬을 도왔으나 33세로 요절하였다. 이 책의 편찬 년대는 그의 외아들 徐宇補가 卒한 純祖 27年(1827) 頃으로 보고 있다.⁴⁾

또한 이 책에 많이 인용된 『金華耕讀記』는 농업경영과 유통경제는 물론 이용후생에 관한 내용

을 포괄적으로 다룬 백과전서 같은 저서로 『林園十六志』의 著作과 동시에 진행이 된 듯하다.

그가 태어난 英祖 末年부터 正祖·純祖·憲宗 年間은 實學派의 극성을 볼 수 있는데 특히 18세기 후반에는 經世致用의 실학과 대가들이 속출하여 實事求是의 考證學이 성행 되었다. 그들은 학문의 대상도 현실적인 국민생활과 밀접한 것을 소재로 다루었고 實證의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모든 것의 결론을 얻고 저 했으며 독창적인 자기 학문을 이룩하려 노력을 하였다.⁵⁾

그리고 正祖 22年(1798)에 王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農書를 종합 편찬 하고 저 求農綸音을 내렸다. 당시 著者는 농학을 家學으로 삼는 가문에다 자신이 지방관으로 농촌의 실태를 파악 하고 농학의 일가견을 갖고 있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부터 農工·産業·六藝 등 十六 부문으로 나누어서 생활 전반에 걸친 百科全書를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의 著作 動機를 『林園十六志』 例言 가운데서 일부를 옮겨보면, “사람이 사는 곳의 風土 習俗이 제각기 다르고 生活樣式도 古今의 차이와 國內外의 구분이 있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하여 생활양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이 책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방법을 취하였고 또 비록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實用性이 없는 것은 取하지 않았다. 그러나 좋은 制度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강구 하지 못한 것은 모두 收錄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것은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模倣



<그림 1> 서유구의 影幀
『역사인물 초상화 대사전』 p.471.

하여 발전시키라는 뜻에서이다.” 이와 같이 그가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 그의 근본 취지를 밝히고 있다.⁶⁾

이 책 十六志 가운데 하나인 贍用志는 卷48부터 卷51까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家屋建築, 裝飾品, 交通手段, 日常用品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제조법과 사용법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贍用志에 포함된 卷 第三 服飾之具의 服飾類 가운데 冠帽, 衣服, 帶屨, 雜飾의 복식자료를 概觀한 것이다.

III. 『林園十六志』 服飾之具의 服飾資料

徐有矩(1764-1845)가 태어난 英祖 말년부터 正祖·純祖·憲宗 年間은 실학정신의 팽배로 經世致用의 실학과 대가들이 속출함은 물론 일반 문인들 가운데서도 과학과 기술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주로 농업과 경제개혁 분야 등에 그 관심이 집중되었다 학문의 대상도 현실적인 국민생활과 밀접한 것을 소재로 다루었고 實證의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모든 것의 결론을 얻고 저 하였다.⁷⁾

실학자 李圭景과 마찬가지로 徐有矩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상생활의 하찮은 일로 생각해서 저술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服飾之具의 衾褥·裁縫諸具·儲藏 등 많은 항목을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방법을 취하였고, 또 비록 좋은 방법이라도 실용성이 없는 것은 取하지 않은 점이 그의 저서가 다른 저서와의 차별성이기도 하다.

『林園十六志』에는 의생활과 관련된 贍用志 卷 第三의 服飾之具에서 男女服과 衾褥·雜飾品·裁縫諸具·儲藏 등을 8種目으로 大別하고 이를 다시 65項目으로 細分하여 16권⁸⁾의 서적을 인용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한 어원적인 고찰과 유래, 의미 또는 용례의 변천과정 등을 서술하고 있다. 즉 내용의 중요도와 귀천의 차이를 두지 않고 의의가 있는 것은 모두 다루었다. 고증방법으로는 주로 문헌 위주의 해석방식을 취하고 있다. 오늘날 유전된 유물과 비교해 보면 잘못 이해한 부분이 간혹 발견되기도 하지만,

당시의 의생활 풍속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기록해 줌으로써 보다 풍성한 생활상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⁹⁾

다음은 『林園十六誌』 贍用誌 복식지구에서 쓰개류, 男女服과 帶와履 그리고 雜飾品の 原文[漢文]을 해석한 것을 먼저 검토하고, 최근까지 발표된 논문 가운데에서 해당 항목에 해당되는 적절한 내용은 발췌하여 原文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補完하였다.

1. 쓰개의 종류

서유구는 다른 실학자들과 마찬가지로 冠帽類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이것은 衣冠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斂髮整首의 필수품인 網巾, 그 위에 쓰는 여러 가지 관모, 쓰개 등이 모두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신분 사회였던 조선에서 관모가 갖는 의미는 그만큼 큰 것 이었다.¹⁰⁾

쓰개의 종류에는 笠, 簑笠, 網巾, 幅巾, 縹冠, 臥龍冠, 東坡巾, 方冠, 毳帽, 風遮, 揮項이 있다. 笠을 시작으로 11종류의 冠巾과 2종류의 笠과巾을 세척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笠: 笠의 八道에 유통되는 것은 耽羅産이十에 統營産이 一이고, 笠의 堅固함은 耽羅簷三이 統營簷 一을 당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新冠 소년의 黃草笠은 그 빛이 金과 같고 開城人들이 잘 만든다고 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笠의 연원을 折風巾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徐有矩는 어이없어 하고 있다. 이것은 李圭景이 李瀾의 『星湖僿說』을 인용하여, 折風巾¹¹⁾이 조선시대 갖으로 변화해 갔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교가 된다. 갖이 더러워졌을 때는 烏豆煎濃湯으로 씻을 것을 알려주고 있다.

簑笠: 農樵家에서 사갓은 옛날에 莎草로 만들었는데 이제 농가에서 쓰는 것은 다 갈대를 쪼개어 만들어 성글고 약하여 쉽게 썩으므로 한 해에 한 번씩 바뀌어 간다. 그러나 湖南竹簑笠은 竹皮를 깎아 가늘고 섬세한 것을 經緯하는 것이 좋는데 일반 사갓에 비하여 배나 크고 簷端이 捲起하여 먼 곳을 바라봄에 걸리지 않고 옷칠하고 혹은 黃漆을 하면 가히 십년은 쓸 수

있다. 簑笠의 材料 선택과 아울러 만들새에 대한 세밀한 忠告를 하고 있다.

網巾: 망건에 대해서는 王思義가 지은 『續三才圖會』를 인용하여 망건이 定制되기까지를 적고, 우리나라는 品級을 分別하는 貫子가 있으며, 關西地方의 定州人이 가장 結網을 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말중으로 재창조된 조선식 망건이 明에 역수출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망건 때 빼는 법이 나와 있다.

幅巾: 幅布는 庶人の 옷이었는데 漢末에 士人의 옷이 되었고, 司馬溫公에 이르러 深衣와 함께 平居冠服이 되었다가 朱子가 家禮에 실음에 禮服이 되었다. 겨울에는 黑緞을 쓰고 여름에는 黑紗를 쓴다

縹冠: 縹布冠이나 詩에는 縹撮로 지으니撮은 그鬢를 거듬이니 옛날에는 太古冠이라 일컫는다. 그 制는 작으되 五梁이 있으니 요즘 사람 들은 撮髻小冠을 만드는데 흑 襍紙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빨로 만들기도 하는데 梁에 옷칠한 것이 있으니 모두 縹撮의 遺制이다.

家禮에 실린바 모두 縹冠과 『三才圖會』에 실린바 五積冠과 같은 것은 形制는 조금 크지만 그 梁이 있고 簪이 있는 것은 지금의 髻의冠과 더불어 大抵 서로 같다. 縹冠은 縹布冠. 縹撮., 太古冠, 撮髻小冠 이라고도 하는데 그 制는 작되 五梁이 있고 襍紙나 빨로 만들기도 한다. 오늘날 상투관이나 노인관이다.

臥龍冠: 일명 綸巾 일명 諸葛巾이니 諸葛武侯¹²⁾가 일찍이 이巾을 썼으므로 因하여 이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 制를 모방하여 혹은 竹絲로 織成하기도 하고 혹은 말갈기로 맺어 이를 만들기도 한다.

東坡巾:巾에 四牆이 있고 牆外 거둬 牆이 있으니 內牆에 비하여 조금 늘어져 前後左右에 각 빨이 서로 向한 것으로 두께 하면 角界가 兩眉間에 있게 되고 老坡 입는 바로 인해서 이름하게 되었고 일찍이 畫像에 보이는데 지금의 冠服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관을 호칭하기를 程子冠이라 한다.

다시 一制를 창안하니 外內牆이 그 끝이 가지런하지 않으나 그 위 四短牆은 가지런하고 안에 있는 四牆의 上頭를 綴하되 서로 연속되지 않게 하여 각자 垂下하여 행동 俯仰할 때 四短牆이



<그림 2> 揮項
梨花女大 滄人服飾美術館 所藏



<그림 3> 風遮
梨花女大 滄人服飾美術館 所藏

사람을 따라 그네 질 하는 것을 東坡冠이라 하고 또 이르기를 東坡가 程子를 보는 冠制인 고로 上下가 顛倒해서 업신여기게 되었고 심상히 齊東에 가까움을 의심하게 한다.

이제 王氏의 이 말을 보면 대개 우리나라의 無稽함을 깨닫게 된다. 이제 행하는바 東坡冠은 一時 杜撰의 制이다.

方冠: 방관은 四角으로 모가 났는데 옛날 角巾의 遺制이다. 말갈기를 써서 둥그레로 맺어 이루며 좋은 제품이 定州·統營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먼저 말갈기로서 疎織함이 篩網과 같고 거듭 접어서 縫하여 冠을 만든다. 다음으로는 忠州 等地에서 나온다

毳毛: 일반백성이 쓰던 것으로 羊毛로 만드는데 남자는 紫帽를 여자는 黑帽를 쓴다. 우리나라 毳帽는 양모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羊을 기르지 않으므로¹³⁾ 중국에서 수입해 오므로 三冬 廢棄의모자를 위해 數十萬兩의 銀貨가 중국으로 보내지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揮項: 앞은 목과 뺨을 보호하고 뒤로는 어깨와 등의 풍한을 막아주는데 담비[貂]가 제일이고 쥐[鼠]가 다음이다. 혹은 貂尾도 쓴다. <그림 2> 紫黑의 비단을 써서 만드는데 春秋에는 貂·鼠를 쓰지 않고 絹緞으로서 겹으로 만드는데 涼揮項 이라한다.

風遮: 휘항과 같이 만드는데 작은 것은 겨우 腦頰[머리와 뺨]을 보호할 정도이고 큰 것은 거꾸로 꺾 놓으면 三圓鬘이 연결한 것 같으니 三山市이라 한다(그림 3).

2. 衣服의 종류

1) 男子服

남자복에는 道袍, 鶴氅衣, 便服, 裘, 氈裘, 褙子, 藤褙子の 7種의 남자복과 手套, 毛襪이 있다. 그리고 「深衣制度」와 「深衣辨證」은 지면의 제약으로 유보하였다.

道袍: 儒服이다. 朝士가 家居할 때 입었는데 吉事에는 靑苧布를 弔祭에는 麻布白袍를 썼다. 계절에 관계없이 모시와 삼베를 썼고 혹은 겨울에 綿을 입는 이도 있었다.

李圭景은 그의 저서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당시 上服 으로 생각하던 도포가 道服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¹⁴⁾ 그러나 도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었으나 최근 李銀珠의 논문¹⁵⁾을 통해서 정리된 바와 같이 도포는 직령포의 무가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포의 존재 시기는 늦어도 고려 말까지로 추정하고 있으며 도포의 첫 기록으로는 明宗 19년(1564)의 기록이 있다.

鶴氅衣: 이 옷 <그림 4, 5>는 諸葛武侯가 입었던 것인데 그 만드는 법이 전하지 않는다. 今人は 公服 속에 검은 가의 창옷[氅衣黑絛]을 입었는데 그 領祛邊이 가지런하여 학창의라 이른다. 서유구는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학창의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남자 편복 포 중 하나로 옛날부터 신선이 입는 옷이라고 하여 사대부의 燕居服으로 덕망 높은 도사나 학자가 입었는데 그 모양은 흰 창의에 가를 검은색으로 꾸민 옷



<그림 4> 臥龍冠과 鶴髦衣
서울역사박물관 所藏



<그림 5> 臥龍冠과 鶴髦衣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전』 p.227.

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었다. 여기에 학창의를 道家의 服으로 보고 野服으로 애용하였던 학자의 학창의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鶴髦衣의 기록은 『東國通鑑』(高麗 睿宗)에 烏巾과 鶴髦衣가 있고, 조선시대에는 중기 이후에 보인다. 송시열은 초야에 있을 때 만년에는 학창의를 많이 입었고 제자 권상하도 烏巾과 鶴髦衣를 입었다. 『朝鮮王朝實錄』 正祖 13년(1789)에는 한가롭게 지낼 때는 반드시 臥龍冠을 쓰고 鶴髦衣를 입는데 학창의는 司馬光의 深衣를 모방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海行總載』에도 일본에 간 사신이 臥龍冠에 鶴髦衣를 입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 이후 野服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학창의를 야복으로 착용하고 道學者的 삶을 살았던 玉所 權燮(1671-1759)의 필사본 『玉所稿』에 실린 학창의를 살펴보면, 학창의는 道家의 服으로 그 제도가 오래되어서 구속하는 바가 없어 소매의 형태도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또 소매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고 하다. 素材에 있어서는 布, 紬, 氈 등으로 하며, 色은 청색, 백색, 황색, 흑색이 있고 緣의 넓이도 넓은 것과 좁은 것도 있다. 緣의 色은 흑색과 청색이 있어 그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옷의 길이는 직선으로 길의 양옆은 터져 있으며 앞길이가 뒷길이보다 길다. 野服으로 帶를 묶지 않는 것

이 不變이다. 학창의의 巾은 다양한 巾을 착용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北宋 때부터 착용된 華陽巾을 가장 잘 어울리는 관모로 본 것 같다.¹⁷⁾

便服: 野服이라고도 하니 朱子가 平居에 深衣 입기를 즐겨 野居에도 편리하게 입으니 上衣下裳制를 쓴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오직 朝祭之服에만 上衣下裳이 있었고 집에 있을 때는 道袍로서 上을 삼고 그 野服을 입을 때는 다시 간편함을 취하였다. 이 옷은 羅大經이 지은 『鶴林玉露』¹⁸⁾에 그 制度를 자상하게 揭載하였다.

庶人이 입는 缺胯衫은 우리나라 杏衣[俗呼: 둥치막]와 더불어 같은데 兩旁綴襠[속호: 무]은 전후를 周連하고 背腰아래는 分開하여 騎乘함에 편리하다. 겨울과 봄에는 겹으로, 여름과 가을에는 홑옷을 썼으며, 隆冬에는 명주[紬]의 겹옷에다 솜을 두어 추위를 막았다. 손님을 맞을 때는 띠로 그 위를 막고, 제사나 잔치 때에는 그 위에다 도포를 加하고 띠를 묶고, 子弟가 尊丈을 뵈올 때에도 이 옷 입는 것을 許하였으니 執事에 편리하게하고 杏衣 등 闊袖하는 비용을 덜게 하였다.

冠禮에 입는 옷 가운데 初加禮時에 冠者가 입는 四襟衫은 結袴衫이라고도 부르며, 藍絹이나 紬로 만들며 童子들의 常服으로 中致莫의 類이다.¹⁹⁾

裘: 갓옷은 대개 獸皮를 取하여 옷을 만드는데 통칭하여 裘라 한다. 귀한 것으로는 담비[貂]

와 여우 皮를 치고 賤한 것으로는 羊과 큰 고라니²⁰⁾ 皮를 친다. 가격은 白가지로 나눈다. 貂產地는 遼東밖 邊方과 建州 땅과 朝鮮國이다. 한 마리의 貂皮는 一尺이 넘고 六十餘個를 가져야 겨우 한 裘服을 만들게 된다. 貂裘란 것은 風雪中에 다니어도 처마 밑 보다 따스하다. 色은 三種이 있으니 하나는 白色이니 白銀貂라 이르고 하나는 純黑色과 하나는 黠黃色이니 狐와 貂은 또한 燕·齊와 遼東 等 여러 곳에서 난다. 純白狐腋으로 만든 裘는 가격이 貂裘와 서로 맞먹고 黃褐狐裘는 가격이 五分의一 밖에 안 되나 寒을 막아 주고 몸을 따스하게 하여 功用이 貂에 버금한다.

대개 서울 밖 시골 여우는 毛를 입으로 불어서 밀을 보아 靑黑色 것은 中國産이고 불어서 白色이 보이는 것도 있으니 이것으로 優劣을 分別한다. 羊皮裘는 어미 것은 賤히 하고 아들 것은 귀히 친다. 腹中에 있는 것은 胞羔라 하고 갓 난 놈은 乳羔라 하고 七個月 된 놈은 走羔라 하고 포고와 유고는 裘가 되고 노린내가 나지 않는다. 옛날에는 羔裘는 大夫의 옷이었는데 이제 西北의 縉紳들이 귀중히 여긴다. 그 늙은 大羊皮를 硝熟해서 裘를 만드는데 裘質이 癡重하면 賤者의 옷이 된다. 그러나 이는 모두 棉과 羊으로 만든 것이요 만일 南方의 短毛革을 잘 다루기를 엮은 종이와 같이 하여 그친 것은 晝燈用으로 쓰일 뿐이고 羊裘를 입는 者는 노린내 나는 氣를 익히기를 오래 하여야 南方 것과 함께 하게 된다. 익히지 않은 것은 감내하기 어렵다. 麂皮(레피: 큰 노루 가죽)는 毛를 버리고 硝熟하여 襖褲(오고: 옷옷과 바지)가 되는데 바람을 막아 주고 몸을 편하게 해주어 버선과 신으로도 참 좋다. [案: 우리나라 關西北山 貂類 가운데 純黃色이 많으며 그 溫厚하기가 建州産에 버금하고 鼠皮革이 있는데 서피는 모두 裘制가 되고 狐皮는 곳곳에 있으며 我國人은 초숙의 법을 익히지 못하여 裘를 만들지 못해서 燕과 무역해서 蜀貓皮 雪白을 심히 사랑하나 다만 毛淺하여 따스하지 못하다.]

殊方의 異物로는 金絲猿같은 것이 있는데 上品은 帽子와 外套로도 쓰이고 黑원숭이 皮를 찢어서 袍를 만들기도 하는데 모두 中華의 物만은 아니다. 飛禽 中에서 매의 腹과 기러기의 脇과

雉毛와 산 것을 잡아서 萬을 차게 해서 한 裘를 얻게 되는데 天鵝絨이라 이른다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위의 글은 『天工開物』을 참고한 내용이다.

옛날의 裘制는 길이는 上衣와 더불어 같았는데 우리나라는 長短과 大小가 一定하지 아니하니 혹 周身하여 環掩함이 지금의 周衣[속칭: 두루마기]와 같다. 혹 半臂에 목이 반듯하고 두 옷깃으로 아래의 길이는 겨우 腹을 가리는 것이 지금의 褸子요 혹 長이 복사뼈 정강이에 미치되 前後가 서로 連屬 아니 됨이 지금 俗에서 이르는바 冬衣[동옷]요 또 혹 지금의 裏衣[俗呼: 저고리]와 같은 것도 있고 그 옷이 혹은 綃縠으로도 하고 혹은 紬絹으로도 하는데 靑紫 沈香 錦香 駝色은 모두 가하고 홀로 紅·黃色 二色은 쓰지 아니 하였고 그 두 옷깃의 아래에 있어서 銀紐[은단추] 혹은 琥珀·蜜花 等 紐를 썼다.

氈裘: 氈裘는 근래 紫色을 쓰는데 혹 靑綠色으로 된 猩猩氈으로 裘를 만든 것은 그 防風과 禦寒이 毛裘 보다 못하지 않다.

褸子: 우리나라 배자는 『三才圖會』에 나오는 배자와는 다르다. 上衣는 짧아서 腹背를 가릴 정도이며 모진 옷깃[方領]을 달고 아래쪽에 끈을 맺도록 하였고 혹은 양 겨드랑이 아래에 玳瑁環을 달아매고 帶環을 앞에 연결한 것도 있다. 毛褸子와 袂褸子(그림 6, 7)가 있다. 현전하는 배자에는 털배자, 겹배자, 등배자 등이 있다.



<그림 6> 누비배자
梨花女大 滄人服飾美術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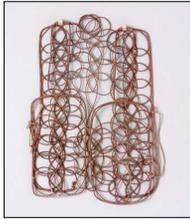


<그림 7> 겹배자
梨花女大 滄人服飾美術館 所藏

徐有矩의 배자나 토시 설명은 다른 저서에서는 볼 수 없는 정확하고 참신한 내용으로 현존하는 유물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藤褸子: 藤絲로 褸子形을 結作 한 것인데 여름철에 살결을 접근해서 입음으로써 땀을 금하

고 옷을 투명케 한다(그림 8, 9). 흰 말갈기, 羽絲, 竹絲, 담장이덩굴, 생모시를 쓰기도 한다.



<그림 8> 藤簍子
梨花女大 滄人服飾美術館
所藏



<그림 9> 藤簍子
梨花女大 滄人服飾美術館
所藏

手套: 토시 <그림 10, 11>는 겨울에 손과 팔목을 가려주고 보호하게 하는 것인데 담비가 으 뜬이고 다음이 鼠羊皮이다. 봄과 가을에는 겹으로도 하고 솜을 두기도 한다.

토시가 남자들의 專有物이며 開化期 이후에 나온 것이라는 기존의 학설은 맞지가 않다. 『經國大典』京工匠 本曹에 대나무나 혹은 버드나무로 여름철 땀받이를 만드는 汗致匠 2인이 있는 것이나, 中宗 25年(1530) 전후에 출토된 여자 토시가 있는 것을 볼 때 토시의 존재 시기는 오래전인 것이다. 출토 토시는 물론 현전하는 토시유물도 그 量이 많다.



<그림 10> 털토시
梨花女大 滄人服飾美術館
所藏



<그림 11> 마재굽토시
梨花女大 滄人服飾美術館
所藏

毛襪: 옛 사람은 가죽으로 버선을 만들고 띠가 있어 존경하는 사람을 뵈올 때는 띠를 풀었다. 후에 布帛 버선은 너구리나 고양이 가죽을 써서 속을 하고 綿布로 겉을 썼는데 두 띠는 종아리를 둘러 交結하였다. 冬月에 細縷飛 버선을 신고 毛襪을 신으면 足冷으로 오는 병을 막을 수 있다. 현전하는 모말은 제주도 유물인 가죽 버선이 있다.

2) 女子服

여자복에는 簇頭伊, 釵, 衣裳, 唐衣, 圓衫, 鞋가 있다.

簇頭伊: 士族부녀의 가체를 엄금하고 簇頭伊로써 대신하도록 하였는데 족두이를 올리는 데는 반드시 毛髮을 거두어 뇌후에 髻[상투]를 만들고 다시 俗呼 “낭즈”를 만드는데 이 또한 가격이 數萬錢이 되었다. 이에 徐有矩는 桐木을 써서 假髮形을 刻作하여 옷칠을 하여 쓰든지 혹은 紙·竹을 써서 만들되 비단으로 싸서 本 상투를 씌운즉 거의 아기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혁신적인 代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결혼한 중국여자들은 頂上에 束髮하는데 假髮로서 加하였다. 北人은 鐵絲로 南人은 竹을 써서 만드는데 함께 絹으로 싸고 또 絹을 捲하여 首帕를 만들고 釵子라고 한다고 하니 자신이 주장한 竹木으로 假髮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柳馨源의 『磻溪隱錄』²¹⁾에서 말하는 婦人服飾에는 마땅히 족두이를 버리고 역자로 대용하라 한 것과 상통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족두리의 형태 造型過程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족두리형태의 출토유물로 구례손씨 족두리 형 모자²²⁾와 안동권씨 족두리²³⁾가 있다. 족두리의 등장시기인 17세기 전반기 이전에 방한용 편모가 존재했던 점과 비슷한 시기의 구례손씨 유물이 족두리형태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구례손씨 유물과 같은 형태가 족두리의 원형으로 추측되며 안동 권씨 족두리는 크기가 작아지는 이행단계에 있는 실물로 볼 수 있다. 전주 최씨 진(續)과 그의 부인 묘에서는 족두리형 여모가 收拾되었는데 소모자와 족두리의 중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년대가 가장 이른 16세기 족두리형이다.²⁴⁾

釵: 釵는 笄이다. 玉簪은 金·珠로 장식하니 그 가격이 비싸다. 요즘은 여인이 嫁醮 때는 銀·鑄·鍍金龍鳳비너를 쓴다. 平居에는 珊瑚簪 혹은 蔡花形을 사용하고 혹은 竹節形 銀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白銅으로 股(다리)를 만들기도 한다.

嬰珞簪, 銀·鑄·鍍金龍鳳簪, 珊瑚簪, 竹節銀簪, 蔡花形簪, 白銅簪이 있는데 현존유물에 있는 비너들이다.

衣裳: 上衣는 소매가 좁고 깃이 짧고 옷설이



<그림 12> 靑色圓衫
梨花女大 澹人服飾美術館 所藏



<그림 13> 靑色圓衫
梨花女大 澹人服飾美術館 所藏

겨우 가슴과 겨드랑이를 가릴 정도요 下裳은 몸을 두루 감고 길이는 허리에 있는데 매고 내려 땅에 끌게 하니古今에 없는 制이다. 연회 때는 綠紫衣를 입는데 俗呼로 ‘傍障衣’ ‘겻마기’라고 한다.

의복의 명칭을 속칭으로 표기해 주어서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겨드랑이 부분[腋間]을 지칭하고 있는 겻마기가 저고리의 일종이었음을 확인 할 수가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최고의 회장저고리의 기록은 宣祖妃 懿仁王后(1600)와 繼妃 仁穆王后(1632)의 殯殿都監儀軌이다.²⁵⁾ 출토품으로는 壬亂前 宣祖 年間の 출토품으로 淸州出土 順天金氏의 솜회장저고리가 있다.²⁶⁾ 또한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淸州韓氏의 겻마기[肩兒只]와 羅州丁氏 配位 恩津宋氏(1509-1580)의 回粧赤古리가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²⁷⁾

唐衣: 당의는 綠衣紅裏이니 소매는 좁고 上衣는 前後가 서로 붙지 않고 길이는 겨우 半身이요, 祀饗[제사와 잔치]時 執爨之服 [밥 지을 때 입는 옷]이다.

唐衣를 사향 시 밥 지을 때 입는 옷이라는 설명은 다른 著書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자료이다. 일할 때 몸을 자주 구부리면 짧은 저고리는 적절하지 않아서 길이가 긴 저고리인 당의를 입는 것이 아닌 가 추측해 본다. 唐衣는 조선시대 궁중이나 사대부가의 여자들 예복이었는데 조선 초·중기 장저고리가 발전한 것으로 본다. 이른 시기의 출토품에는 羅州丁氏 配位 恩津宋氏(1509-1580)의 金箔唐衣나 淸州韓氏 織金唐衣(16세기 후반 추정)가 있다.²⁸⁾ 당의는 주로 見舅姑禮를 올릴 때나 현구고례가 끝난 후에 간이

예복으로 착용했던 것 같다.²⁹⁾

圓衫: 우리나라 부녀의 옷 가운데 소매가 넓고 上衣가 긴 것은 오직 이 옷뿐이다. 그러나 평상에는 입지 않고 오직 살아서는 嫁醮 때요 죽어서는 襲斂 때 비로소 입되 醮禮에는 紅色을 쓰고 斂에는 綠色을 쓴다.

宮中圓衫이 아닌 일반원삼에는 綠色이 대부분이고 靑色圓衫³⁰⁾ <그림 12, 13>도 있지만 紅色원삼 유물은 아직 보지를 못했다. 徐有矩가 홍색 활옷을 보고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圓衫의 유래에 대하여는 異見이 많다. 조선의 草綠圓衫의 제도는 중국에서 사여된 團衫에서 발전한 것이 아닌가 한다.³¹⁾ 현존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원삼은 중요민속자료 제4호로 지정된 肅宗朝 좌의정을 지낸 이단하(李端夏: 1649-1689)의 처 정경부인의 녹색직금 원삼(1680)이 있다.³²⁾ 출토 유물로는 김확(金鑊)의 配位 동래정씨(1567-1631)의 원삼이 가장 연대가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³³⁾

鞋: 紅·綠 등의 비단을 써서 만드는데 그 신고 장식은 雙雲形으로 많이 만든다. 現傳 유물에 있는 雲鞋인 것 같다.

3. 帶·屨의 종류

帶와 신발류로는 屨, 屣, 屨이 있고 가죽신을 사용하는 법인 用鞋法이 보인다.

帶: 옛날에 남자는 革을 쓰고 여자는 絲를 썼다. 우리나라 婦女들은 띠가 없었고 絲帶는 남자들이 쓰게 되었다. 燕京구역에서 사온 겹으로 짠 좁은 끈이 가장 耐久하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능히 이를 만들며 圓條兒를 만들기도 한다.

인끈[綬]도 있는데 裏面에 木綿絲를 써서 胎를 하여 耐久치 않다. 黑白·沈香·錦香 諸色도 있고 色을 쓴 비단이나 鹿皮로도 띠를 만든다.

屨: 『字書』에 屨로 만든 것을 屨[짚신]라하고 麻[삼]로 만든 것을 屨라 하고 가죽으로 만든 것을 屨라 하였다. 그러나 『說文』에 이르기를 屨는 屨也요 鞮也라 하였다. 徐鉉이 이르기를 鞮는 革屨也라 하였고 『儀禮』 士冠禮에 夏葛屨 冬皮屨라 하였으니 屨와 屨는 通用한 것이다. 鹿皮가 佳品이고 獐皮가 次品이고 紙로 꼬아 織成하기도 하되 楮皮로 가에다 線을 둘러 편리하고 편안하고 또 따스하다. 驢兒皮[나귀가죽]로 만들기도 한다. 기름을 붓고 釘을 붙이어 가히 진흙수렁에 衝할 수 있게 한 것을 泥鞋라 한다. 關西人들이 皮屨를 잘 만들었다.

屨: 짚신은 『釋名』³⁴⁾에 屨曰屨라 하니 지금의 麻屨·藁屨가 다 짚신의 類다. 그 物賤하므로 갖추기 쉽고 빌릴 필요가 없다하여 不借라 한다. 漢文帝가 朝會에 짚신을 신었으니 옛날에도 賤子의 사용만은 아니었는데 지금의 士大夫는 草屨를 신는 이가 드물다. 그러나 산에 오를 때는 꼭 필요하다.

屨: 나막신은 진흙과 수렁을 감내하기 위함이다. 統營에서 만든 屨烙한 것이 佳品이다.

用鞋法: 가죽신을 사용 하는 법, 泥鞋를 신고 나서 보관 하는 법이 있다. 釘鞋에 釘[못]이 떨어지면 곧 釘을 補하여 물이 釘眼을 따라 침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木套 즉 木屨은 다 만든 뒤에 반드시 세척해서는 안 되고 다만 濕布를 사용하되 套面만 淨拭하여 바람 있는 곳에 방치할 것이요 햇볕에 만일 건조 시키면 板皮가 損裂한다.

4. 雜飾의 종류

雜飾에는 佩刀, 抄舌, 佩囊, 摺疊扇, 毛扇이 있다.

佩刀: 上衣에 小刀를 차는데 물소 뼈·玳瑁·沈香·黑角·華黎를 사용하여 자루와 칼집을 만든다. 혹은 烏銅에 새긴 자루는 倭制이다. 중국에서 만든 象牙箸를 꽂아 만든 것은 가히 衣帶사이에 잘 만하다.

抄舌: 상아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形이 붓 씌우개 안에 귀이개를 감춘 것 같다. 齒를 가리는

靑紫絲가 纓佩가 된다. 衣纓에 있어서는 혹 玉石·錦貝·琥珀 등을 사용한다. 形制가 좀 큰 것은 八稜·六稜을 만드는 것이 많다.

抄舌은 초혜집이다. 뚜껑이 있는 장방형으로 통 속에는 끈에 연결된 이치개와 귀이개가 있다. 남자는 선주로 사용하고 여자는 단작노리개로도 찬다. 재료는 玉石·象牙·나무 등이 있는데 六稜의 文字를 陰刻한 은제품의 유물이 많이 있다.

佩囊: 주머니는 여러색 비단을 사용하여 만드는데 모난것 둥근것 뜻대로 하고 靑·紫실로 끈을 만들어 腰間에 차고 안에 부시(火鍊) 족집게(鑷子) 등物을 藏한다고 하는데 이는 角囊, 夾囊의 부시주머니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摺疊扇: 憑時可의 蓬臈續錄(?)에 이르기를 聚頭扇은 곧 摺疊扇이니 永樂間에 貢物이어서 나라에서 盛行하였으므로 東坡가 이르기를 高麗白松扇은 펴면 廣이 尺餘요 合하면 兩指가 된다. 하였고 倭人이 만든바 面에 金을 칠하고 烏竹으로 뼈하였다. 하니 곧 이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중국에는 접첩선이 없었고 扇은 모두 둥근 부채 類만 있었으니 우리나라에서 이르러는바 尾扇이다. 대개 옛 그림을 보면 파초 잎·오동 잎·白翎의 類가 이것이다. 우리나라 器什은 일본 것을 모방함이 많으니 접첩선은 高麗는 일본 것을 배웠으며 중국은 高麗것을 배운 것인가? 중국 大扇은 高麗扇이라 이름하고 만든 것이 매우 소박하다. 우리나라 것을 본따서 종이는 누렇게 기름 먹이고 細書·細畫한 것은 자못 보배롭게 여기더라. 이상은 『熱河日記』의 글인데 접첩선을 고려가 일본 것을 배웠다는 것은 적절한 답이 아니고 중국이 고려 것을 배운 것이다.

우리나라 부채로는 全州·南平 等産으로 佳品을 삼았다. 僧頭扇·蛇頭扇·有環扇·無環扇과 外角扇·內角扇·濶沿扇·狹沿扇 등 制樣이 각각 다르다. 俗에서는 白黑 二色을 좋아하고 紅黃色은 婦人·小兒가 靑色것은 新郎이 잡는데 近者에는 一種의 鴨靑色扇이 있는데 자못 숭상하고 婦女들은 諸色團扇을 갖는다. 오월에는 嶺·湖南觀察營에서 進扇하는데 端午日에 近侍에게 賜하고 端午扇이라 불렀는데 아주 큰 것은 竹幅이 五十이 차는데 이름 하기를 白帖扇이라

하였고 이를 얻는 이는 金剛山 一萬二千峰을 많이 그리었고 今俗에는 즐겨 折枝·桃花·蝴蝶·芙蓉·銀鯽·鸞鷲를 즐겨 그렸다. 이상의 글은 『京都雜誌』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

齊中에서는 마땅히 華造를 써야 하고 棕欄로 邊을 한 것은 倭造인데 金畫를 칠한 것이 있다. 華倭의 扇은 비록 短小하되 矢가 극히 강하고 또한 兩面에다 종이를 발라서 가장 능히 바람을 鼓吹하게 하였다.

毛扇: 겨울에는 毛扇을 갖는다. 그 만듭새는 두 기둥에다 貂領黃毛로 싸고 竹節을 作用하여 黑緞一幅으로 狀聯하게 하고 혹은 獠皮를 사용하여 기둥을 싸는 것은 손을 따스하게 하고 面을 보호함을 取함이다. 춘·추에는 紗幅을 사용하되 障塵에는 獠草으로 기둥을 짚는다. 이처럼 毛扇의 내용을 설명해준 것도 徐有矩가 처음인 것 같다. 紗扇은 순전히 내외를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신랑이나 喪主가 얼굴을 가릴 때 사용했다. 신윤복의 雙劍對舞에서 紗扇을 들고 있는 선비를 볼 수 있으며, 휘향을 쓰고 毛扇을 들고 있는 선비도 풍속화에 보인다. 현전 유물 가운데는 紗扇이 많이 있다. 이는 신랑의 遮面用으로 두 기둥은 綿이나 絨으로 감싸고 있다(그림 14, 15). 당시에는 防寒用으로 毛扇을 사용하고 춘추에는 일반인들도 차면용으로 紗幅을 쓰고, 防塵에는 두 기둥을 노루가죽으로 짚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 紗扇
梨花女大 澹人服飾美術館
所藏



<그림 15> 紗扇
梨花女大 澹人服飾美術館
所藏

IV. 『林園十六誌』를 통해 본 徐有矩의 服飾認識

徐有矩는 百家의 諸書에 통달하여 文名이 높았는데, 특히 利用厚生의 실용적 학문에 조예가

깊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상생활의 하찮은 일로 생각해서 저술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服飾之具의 衾褥·裁縫諸具·儲藏 등 많은 항목을 세밀한 부분까지 저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실용철학을 알 수 있는 『林園十六志』 例言 가운데서 일부를 옮겨보면, “사람이 사는 곳의 風土 習俗이 제각기 다르고 生活樣式도 古今의 차이와 國內외의 구분이 있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하여 생활양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이 책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방법을 취하였고 또 비록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實用性이 없는 것은 取하지 않았다. 그러나 좋은 制度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강구하지 못한 것은 모두 收錄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것은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模倣하여 발전시키라는 뜻에서이다.” 이와 같이 그가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 그의 근본 취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그의 실용철학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은 徐有矩의 실용적인 服飾觀을 엿 볼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망건은 계란 노른자를 발랐다가 刷子[모자나 옷을 터는 옷솔]나 薰水[藥草名·附子]로서 깨끗이 씻은즉 새것이 되고 또한 뜨거운 灰汁[젓물]에 끓이면 또한 좋고 망건에 때가 없으면 眼疾頭痛이 없다.

2) 갓이 기름에 더러워졌거나 혹은 땀이 배었을 때 烏豆煎濃湯으로 씻으라

망건이나 갓을 세척하는 자질구레한 일이라도 실용성을 생각하고 적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3) 農樵家 에서 삿갓은 옛날에 莎草로 만들었는데 이제 농가에서 쓰는 것은 다 갈대를 쪼개어 만들어 성글고 약하여 쉽게 썩으므로 한해에 한 번씩 바뀌어 간다. 그러나 湖南竹箕箆는 竹皮를 깎아 가늘고 섬세한 것을 經緯하는 것이 좋은데 일반 삿갓에 비하여 배나 크고 簷端이 捲起하여 먼 곳을 바라봄에 걸리지 않고 옷칠하고 혹은 黃漆을 하면 가히 십년은 쓸 수 있다고 箕箆의 材料 선택과 아울러 만듭새에 대한 세밀한 忠告를 하고 있다.

4) 土族부녀의 가체를 엄금하고 簇頭伊로써

대신하도록 하였는데 簇頭伊를 올리는 데는 반드시 毛髮을 거두어 뇌후에 髻[상투]를 만들고 다시 俗呼 ‘낭즈’를 만드는데 이 또한 가격이 數萬錢이 되었다. 이에 徐有矩는 桐木을 써서 假髮形을 刻作하여 옷칠을 하여 쓰든지 帛·竹을 써서 만들되 비단으로 짜서 本 상투를 씌운 즉 거의 아끼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혁신적인 代案을 제시하고 있다.

5) 蠶 毛는 일반백성이 쓰던 것으로 羊毛로 만드는데 남자는 紫帽를 여자는 黑帽를 쓴다. 우리나라 蠶帽는 양모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羊을 기르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해오므로 三冬 廢棄의모자를 위해 數十萬兩의 銀貨가 중국으로 보내져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을 크게 한탄하고 있다.

6) 우리나라 扇制는 長濶함을 務尙하여 길이가 거의 一尺二·三寸이 되어 펴 면은 넓이가 三尺이 넘기도 했다. 竹幅이 이미 많아서 얇게 깎지 않을 수 없고 만일 종이가 完全하여 바람을 鼓하지 못하거나 또 能히 耐久치 못하여 豪貴한 이들은 매일 一扇을 바꾸었으며 여름에 밧갈고 말을 치는 賤한 이라도 또한 반드시 한 해에 一扇씩 바꾸었으며 嶺湖營邑에서의 歲賀가 累白萬錢이나 들여 이를 만들어 朝廷의 귀한 이와 親舊에게 드리게 되어 동·남쪽 죽전의 美가 날로 더욱 童濯(산에 나무가 없음)하고 非計劃을 調節함을 알지 못한다. 즉 우리나라의 부채가 크기만 하고 약하여 부채를 자주 바꾸게 되고, 조절과 계획 없이 朝廷의 귀한분이나 친구에게 進扇함으로써 죽전이 황폐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7) 針은 본래 鍼을 만들었다. 『說文』에 鍼縫布帛之錐가 이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침을 만드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반드시 燕 貿易을 기다린 뒤에야 비로써 給用하였으니 이 같이 日用不可缺의 需要가 또한 他地域에서 輸給하고 있으니 萬一 遼東이나 瀋陽의 길이 三·五年이나 막히어 不通한다면 압록강 以東의 사람들은 모두 장차 별거승이가 될 것인가? 天工이 開物할 때 造針法이 있을 것이어늘 진실로 능히 法을 按하여 打造하여 국내에 유통한다면 또한 利用厚生에 一助 하리라. 일용불가결의 물건인 바늘을 하루속히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 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8) 가죽신을 사용 하는 법. 가죽신 밑은 항상 햇빛 쬐는 것을 要한다. 극히 건조하면 오래 견디나. 요컨대 신 밑이 습하면 쉽게 무너짐을 알아야 한다. 가죽신은 二·三결레를 사용하여 바꿔 가면서 햇볕을 쬐 두는 것이 가장 좋다.

泥鞋는 비올 때 사용하는데 비가 지난 뒤에는 곧 濕布를 쓰되 진흙으로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닦아 처마아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 놓아 바람이 불어 건조하게 하고 항상 돼지기름을 사용하되 가죽신에다 기름이 신발 밑까지 배도록 한다. 또 生桐油를 사용 貫透하게 하면 오래 견디는데 절대 햇볕 쬐이지 말 것이며 또한 습한 곳에다 방치하지 말 것이며 一次 사용하였으면 한번 기름칠하면 不壞한다.

釘鞋에 만일 釘이 떨어짐이 있거든 수시로 곧 釘을 補하여 가히 게을리 하지 말 것이며 要는 물이 釘眼을 따라 침입함을 알아야 한다.

木套 [案: 목투 卽 木履]는 다 만든 뒤에는 반드시 세척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濕布를 사용하되 套面만 淨拭하여 바람 있는 곳에 방치 할 것이요 햇볕에 만일 건조 시키면 板皮가 損裂한다.

가죽신, 泥鞋, 釘鞋, 나막신에 대한 사용·보관법을 전문가 못지않게 훌륭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9) 결과삼(缺袴衫)은 庶人들의 옷인데 소매가 좁고 옷깃이 交領이며 저고리의 전후가 서로 連續되지 않으니 우리나라 杏衣 [俗呼: 둥치막]와 더불어 서로 같은데, 背腰 아래가 分開하여 騎乘하기에 편리하고 糝옷, 겹옷과 명주 繻옷이 있다. 손님을 맞을 때는 띠로 그 위를 묶고 제사나 잔치에는 그 위에다 道袍를 加하고 띠를 묶고, 子弟가 尊丈을 뵈올 때에도 이 옷 입는 것을 許한즉 이미 執事에 편리하고 杏衣 등 闊袖하는 비용을 덜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이로서 실학자 徐有矩의 실용성을 앞세운 그의 다방면에 걸친 服飾認識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V. 요약 및 결론

徐有矩의 만년의 大著인 『林園經濟誌』 또는 『林園十六誌』는 그의 경제정책을 알 수 있는 農

村經濟政策書이나 이 가운데 있는 贍用誌는 卷 48부터 卷51까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家屋建築·裝飾品·交通手段 等に 關於하여 설명한 것으로서 그 제조법과 사용법 등이 적혀있다.

贍用誌 卷 第三의 服飾之具에는 男女服과 寢具·雜飾品·裁縫用具 등을 8種目으로 大別하고 이를 다시 65點으로 細分하였다. 『金華耕讀記』를 중심으로 16권의 서적을 인용하여서 箇箇의 物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衣裳에 포함된 深衣制度和 深衣辨證 그리고 衾褥, 裁縫諸具, 儲藏의 항목은 지면의 제약으로 보류하였다.

服飾之具의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特記할 點을 要約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服飾에 關於한 항목만을 떼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著者 生存 時인 18世紀末부터 19世紀初에 걸친 士庶人 복식의 일면을 概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正服인 團領과 帖裏가 빠진 것은 반복이기 때문인 것 같다.³⁵⁾

둘째, 現存 遺物가운데 文獻資料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收錄되어 있는 것이다. 남자 조끼의 전신인 「襟子」나 토시인 「手套」가 좋은 例가 될 수 있다.

셋째, 漢子로 된 명칭아래에 ‘俗呼’라 하고 한글로 표기를 해주어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例를 들면 便服 설명에 나오는 「杏衣」 「周衣」 「裏衣」 「兩旁綴襠」 밑에 ‘둥치막’ ‘두루마기’ ‘저고리’ ‘무’라 덧 붙여 설명을 한 것이다. ‘두루마기’라는 한글 용어가 19세기 초엽에 이미 두루 쓰여 지고 있음을 이 책을 통해 확인 할 수가 있다. 이보다 앞서 正祖22年(1798) 冬至使의 書狀官으로 임명되어 이듬해에 귀국, 한글로 된 徐有聞의 연행기록인 『戊午燕行錄』에도 ‘두루마기’라는 명칭이 많이 보이고 있다. 周衣는 일찍이 英祖49年(1773)에 便服袍 뿐만 아니라 승려의 옷으로 周衣를 입은 기록이 文獻에 보이고 宣祖代의 遺物도 있다.

또한 女服에서 오늘날 「回裝저고리」를 당시는 ‘綠紫衣’인데 俗呼로는 ‘旁障衣’ ‘갓마기’라고 表記해 준 것도 마찬가지 例이다.

넷째, 徐有矩의 실용적인 服飾觀을 엿 볼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망건 때 빼는 법과 갓이 더러워졌을 때 세척하는 법을 알려 주고 있다.

2) 農樵家에서 사용하는 簑笠의 材料 선택과 아울러 만들새에 대한 세밀한 忠告를 하고 있다.

3) 士族부녀의 가채대신 徐有矩는 桐木을 써서 假髮形을 刻作하여 옷칠을 하여 쓰든지 蠟紙·竹을 써서 만들되 비단으로 싸서 本 상투를 씌운즉 거의 아끼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혁신적인 代案을 제시하고 있다.

4) 蠶帽는 양모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羊을 기르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해오므로 三冬 廢棄의모자를 위해 數十萬兩의 銀貨가 중국으로 보내져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을 크게 한탄하고 있다.

5) 우리나라 扇制는 크기만 하고 약하여 부채를 자주 바꾸게 되고, 조절과 계획 없이 朝廷의 귀한분이나 친구에게 進扇함으로써 죽전이 황폐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6) 日用不可缺의 물건인 바늘[針]을 하루속히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 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7) 가죽신, 泥鞋, 釘鞋, 나막신에 대한 사용·보관법을 전문가 못지않은 훌륭한 설명을 하고 있다.

8) 결과삼(缺勝衫)은 庶人들의 옷인데 손님을 맞을 때는 띠로 그 위를 묶고 제사나 잔치에는 그 위에다 道袍를 加하고 띠를 묶고, 子弟가 尊丈을 뵈올 때에도 이 옷 입는 것을 許한즉 이미 執事에 편리하고 杏衣 등 闊袖하는 비용을 덜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이로서 실학자 徐有矩의 실용적 服飾觀을 이해 할 수가 있었다.

끝으로 著者가 여러 서적을 인용한고로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著者 역시 당시의 士大夫 관료들이 보편적으로 지녔던 慕華思想의 경향도 없지는 않으나 이 책의 例言에서 밝혔듯이 實用的인 것은 自國이나 外國의 것을 가리지 않고 記錄을 한 고로 참고 자료로서 文獻資料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고에서 난해한 한문 번역에 따른 매끄럽지 못한 해석 부분이 많이 있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곳 또한 많이 보이지만, 현재 專門機關에서 만들고 있는 包括的이고도 정확한 『林園十六志』에 대한 훌륭한 解説書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誤謬를 바로잡고 미비한 부분은 補完하기

로 하며, 1967년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에서 『林園十六志』 第二卷 영인본이 출간된 이래 이 책의 복식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와 인용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져 왔지만 전편적인 것은 한편도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의 원문[漢文]번역과 간단한 補完 설명을 적어보았다.

참 고 문 헌

- 1) 孫敬子·金英淑 共編著 (1982). 韓國服飾史 資料選集 朝鮮編Ⅲ. 서울: 敎文社, p.3.
- 2) Ibid., p.3.
- 3) 盧賢淑 (1994). 風俗畫를 통해 본 朝鮮時代의 一般服飾 研究.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 최경순 (1996). 조선조 加髻 논의와 그 요인. *복식문화연구 4(1)*, p.17. p.22.
- 진정희, 박현정 (1999). 靑色 圓衫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학회지 2(1)*, pp.5-19.
- 鄭福南 (1999). 갓옷에 關한 研究 -朝鮮時代를 中心으로-. *服飾 23號*, p.67. pp.70-73.
- 張淑煥 (2002). *전통장신구*. 서울: 대원사, p.32. p.111.
- 張淑煥 (2003). *전통남자장신구*. 서울: 대원사, p.36.
- 張慶姬 (2004). *朝鮮時代 冠帽工藝史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pp.53-54. p.62. p.145. p.290.
- 4) 李盛雨 (1981). *韓國食經大典*. 서울: 鄉文社, pp.92-95.
- 5) 劉元東, 外 (1982). *林園十六志, 韓國의 名著 2*. 서울: 玄岩社, p.395.
- 6) Ibid., p.397.
- 7) Ibid., p.395.
- 8) 『金華耕讀記』 『物類相感志』 『王氏農書』 『和漢三才圖會』 『山林經濟補』 『熱河日記』 『農桑撮要』 『知世事』 『京都雜誌』 『古今秘苑』 『人事通』 『家禮儀節』 『馮氏日談』 『東醫寶鑑』 『天工開物』 『俗事方』
- 9) 주영하 외3 共著·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의 변화를 엿보다. 『五洲衍文長箋散稿』를 통해본 조선 후기 생활 문화*, 돌베개, p.80.
- 10) 주영하 외3 共著·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Op. cit.*, pp.82-83.
- 11) 金文子 (1984). 고대한국복식의 원류에 관한 연구 -스키타이계 복식문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4-25. 折風은 弁形帽으로써 笠子와는 다르다.
- 12) 제갈량 (諸葛亮: 181-234) 중국 삼국시대 蜀漢의 정치가 겸 전략가. 명성이 높아 와룡선생이라 일컬어졌다.
- 13) 中宗實錄 卷25, 11年 5月 辛卯.
- 14) 孫敬子·金英淑 共編著 (1982). 韓國服飾史 資料選集 朝鮮編Ⅲ. 서울: 敎文社, p.465.
- 15) 李銀珠 (1999). 道袍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이민주 (2005). 玉所 權變의 鶴髦衣에 관한 研究 -『玉所稿』 소재 학창의 관계자료를 대상으로-, *복식문화연구 13(2)*, p.85.
- 17) Ibid., p.278.
- 18)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四禮 服飾, *韓國의 服飾*, p.235.
- 19) 포유류 사슴과의 한 종, 노루의 일종으로 몸길이 90cm 정도로 작고 암수 모두 뿔이 없음.
- 20) 조선 중기의 실학자 柳馨源(1622-1673)의 국가 운영과 개혁에 대한 견해를 담은 책. 1652년(효종 3)에 쓰기 시작하여 1670년(현종 11) 완성하였다.
- 21) 충북대학교박물관 소장 구례 손씨(1576-1626) 족두리 유물은 크기는 매우 크지만 몸판 7쪽을 이어 붙였고 두정(頭頂)을 원형으로 마감했으며 뒤가 높고 앞이 낮은 족두리 형태를 갖추었다.
- 22) 경기도박물관의 안동권씨(1664-1722) 족두리는 구례손씨 유물보다는 작지만 역시 7쪽의 몸판, 원형의 두정, 뒤가 높고 앞이 낮은 족두리의 특징을 보여준다.
- 23) 이은주·하명은·안태현 (2007). 16세기 후반 전주최씨 일가 묘 출토복식의 사료적 가치, *한복문화학회지 10(1)*, p.161.

- 24) 박성실 (1994). 回粧赤古里와 肩尔只 再考,
美術資料 第五十四號 國立中央博物館, p.44.
- 25)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
복식·자료편, p.278.
- 2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名選
下. 민속·복식, pp.138-139.
- 27) Ibid., pp.125-126.
- 28) 신혜성 (2005). 韓國과 中國의 傳統婚禮服飾
에 관한 연구 -18~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22.
- 29) 진정희, 박현정 (1999). 靑色 圓衫에 관한
연구. 韓복문화학회 2(1), pp.5-19.
- 30) 신혜성 (2005). Op. cit., p.124.
- 31) 이성희 (2003). 朝鮮後期 露衣에 관한 연구 -
청연군주 出土服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 32) 송미경 (2006). 17세기 전기 여자 염습의(驗
襲衣)의 일례 -김확(金爍) 배위 동래정씨
(1567-1631)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韓복
문화학회지 9(3), p.131.
- 33) 중국 後漢末 劉熙가 지은 辭書. 같은 음을
가진 말로 어원을 설명하였다.
- 34) 正祖實錄 卷28, 13年 10月 己未.